정신문화연구 2009 여름호 제32권 제2호(통권 115호) pp. 59~80.

研究論文

우리말의 되풀이 매인이름씨에 관한 연구

한 길*

Ⅰ. 들머리 <참고문헌>
Ⅱ. 되풀이 매인이름씨의 말본적 특성과 의미 기능 <국문요약>
Ⅲ. 마무리

Ⅰ. 들머리

이름씨 가운데 자립성이 없고 항상 앞자리에 매김말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매인이름씨에 해당한다.[1] 매인이름씨는 대체로 실질적 의미인 어휘적 뜻을 가지지 않고, 형식적 의미인 말본적 뜻을 나타낸다. 매인이름씨 가운데 일부인 '둥, 체, 듯, 데, 겸'은 월 안에서 되풀이되어 최소 말본형인 되풀이 매인이름씨 '둥…둥', '체…체', '듯…듯', '데…데', '겸…겸'을 짜 이룬다.[2]

* 강원대학교 교수, 국어학 전공(hankil@kangwon.ac.kr).

1) 최현배는 매김말로는 매김씨나, 풀이씨의 매김꼴이나, 매김씨 노릇을 하는 이름씨가 쓰인다고 하였다. 최현배, 『우리말본』(정음사, 1971), 219쪽. 서정수는 이 밖의 매김말로, '체언의 관형사형(체언+의)'과 '용언의 명사형(용언+명사화소 기)'을 더 들었다. 서정수, 『국어문법』(뿌리깊은나무, 1994), 403쪽.

2) 우리말에서 되풀이 현상은 월의 이루고 있는 각 요소들에서 체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되풀이 법으로 정립된다. 월을 이루는 요소들의 되풀이법에 관한 논의로는 한길, 「월조각의 되풀이법 연구」, 『한글』, 221(한글학회, 1993); 한길, 『현대 우리말의 형태론』(역락, 2006); 한길, 「물음법 되풀이 마침씨끝 월의 특성」, 『강원인문논총』, 18집(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7); 한길, 「서술법

(1) ㄱ. 철수가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학교에 갔다.
ㄴ. 철수는 순이를 본 **체** 만 **체** 하였다.
ㄷ. 철수는 들릴 **듯** 말 **듯** 한 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ㄹ. 카메라가 온 **데** 간 **데** 없이 사라졌다.
ㅁ. 철수는 친구도 만날 **겸** 학용품도 살 **겸** 시내에 나갔다.

이들 되풀이 매인이름씨는 반드시 되풀이되어야 하는 것과 되풀이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있다. 이를테면, '-는 둥'은 반드시 되풀이되어 '-는 둥…-는 둥'으로 쓰여야 적격해 지며, '-는 둥'만은 쓰일 수 없다.[3] 그러나 '-을 겸'은 되풀이되어 '-을 겸…-을 겸'으로 쓰일 수도 있고, '-을 겸'만으로도 쓰일 수 있다.

(2) ㄱ. 철수가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학교에 갔다.
* 철수가 밥을 먹는 **둥** 하고 학교에 갔다.
ㄴ. 철수는 친구도 만날 **겸** 학용품도 살 **겸** 시내에 나갔다.
철수는 친구도 만날 **겸** 시내에 나갔다.

이들 되풀이 매인이름씨 앞에 놓이는 매김말에는 제약이 따른다. '둥' 앞에는 매김꼴 '-는'과 '-을', '-은'이 놓일 수 있어 제약이 없지만, '체' 앞에는 '-은'만 놓일 수 있으며, '듯' 앞에는 '-을'만 놓일 수 있다. '겸' 앞에는 '-을'만 놓일 수 있으며, 다른 되풀이 매인이름씨와는 달리 이름씨로 이루어진 매김말도 놓일 수 있다.

되풀이 매인이름씨 앞에 풀이씨의 매김꼴이 놓이는 경우, 매인이름씨에 따라 풀이씨의 종류에 제약이 따르기도 한다. 또한 앞자리 매인이름씨와 뒷자리 매인이름씨 앞에 놓이는 요소들에도 제약이 따른다. 예컨대, 앞자리 '-은 체' 앞에는 움직씨 뿌리만 결합될 수 있으며, 뒷자리 '-은 체' 앞에는 '말-'만 놓일 수 있는 제약이 따른다. 앞자리에 놓이는 매김씨끝의 종류나 풀이씨의 종류에서 '둥…둥'은 분포에 제약이 적지만, 그 밖의 것들은 극심한 제약을 보여 익은말화 하거나 결합과정

되풀이 마침씨끝 월의 특성」, 『한글』, 279(한글학회, 2008); 한길, 『우리말의 낱말생성 되풀이법 연구』(강원대학교출판부, 2009) 등이 있다.

3) '-는 둥'이 아니고 '-는다/느냐/-자/-으라는 둥'인 경우에는 되풀이가 수의적이다. "철수는 공부를 잘 못**한다는 둥** 말이 많았다"에서 곧 '둥' 앞에 놓이는 매김꼴의 유형이 되풀이가 필수적이냐 수의적이냐에 영향을 미친다.

을 거쳐 한 낱말로 생성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되풀이 매인이름씨들은 각각 말본적 특성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되풀이 매인이름씨를 선정하여 각각의 형태·통사적 특성을 규명하고, 의미적 기능을 밝히기로 한다.

II. 되풀이 매인이름씨의 말본적 특성과 의미 기능

매인이름씨 가운데 극히 일부인 '둥, 체, 듯, 데, 겸'이 필수적으로, 혹은 수의적으로 되풀이되어 최소 말본형[4] '둥…둥', '체…체', '듯…듯', '데…데', 겸…겸'을 짜 이루었다.

1. 둥…둥

매인이름씨 '둥'은 월에서 되풀이되어 '둥…둥'의 꼴로 쓰이어 최소 말본형을 짜 이룬다. '둥' 앞에는 매김꼴인 '움직씨 뿌리 + -는/은/을'이 통합될 수도 있고, 건너따옴꼴 '-는다는/느냐는/자는/으라는'이 통합될 수 있는데, 매김꼴의 유형이 무엇이냐에 따라 쓰임과 뜻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각각 나누어 그 쓰임과 뜻을 살펴야 한다.

먼저 '움직씨 뿌리 + -는/은/을' 매김꼴이 통합되는 '둥'의 쓰임을 보면, '-은/는/을 둥'은 반드시 되풀이되어 '-은/는/을 둥…-은/는/을 둥' '둥'이란 통사적 짜임새를 짜 이루며, 되풀이되지 않은 '-은/는/을 둥'만은 쓰일 수 없다. '둥1'[5] 앞에는 움직씨의 매김꼴이 놓이며, 때매김에 따라 '-는, -은, -을'이 통합 가능하지만, '-던'은 통합될 수 없는 제약이 따른다. '둥1'과 '둥2'에는 동일한 때매김의 매김꼴이 통합되어야 하며, 때매김이 달라지면 부적격해진다. 따라서 앞자리에 놓이는 매김씨끝에 따라 최소 말본형으로 '-는 둥…-는 둥', '-은 둥…-은 둥', '-을 둥…-을 둥'으로 고정된다.

---

4) 김석득은 말본 형식의 최소의 낱덩이를 "말본 범주의 최소형"이라고 한 바 있다. 김석득, 『우리말 형태론』(탑출판사, 1992), 530쪽. 최소 말본형은 이와 꼭 같은 개념으로 쓰인다.

5) 되풀이 매인이름씨 뒤에 1과 2를 붙인 까닭은 편의상으로, 앞의 것을 가리킬 때 1을 붙이고 뒤의 것을 가리킬 때 2를 붙였다. 앞과 뒤를 가를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숫자를 붙이지 않았다.

(3) ㄱ. 비가 오**는** 둥 마**는**/*만/*말 둥 했다.
ㄴ. 비가 **온** 둥 *마는/**만**/*말 둥 했다.
ㄷ. 비가 **올** 둥 *마는/*만/**말** 둥 했다.

앞자리의 '-는/은/을 둥' 앞에는 움직씨 뿌리만이 결합될 수 있다. 움직씨 뿌리 다음에는 때매김씨끝은 결합될 수 없으며, 월의 주체가 높임의 대상인 경우에 '-으시-'의 결합은 가능하다. 그림씨나 잡음씨 뿌리는 결합될 수 없는 제약이 따른다.

(4) ㄱ. 할아버지께서 식사를 하**시**는 둥 마**시**는 둥 하셨다.
ㄴ. *날씨가 **추울** 둥 말 둥 하다.
ㄷ. *철수가 우등생**일** 둥 말 둥 했다.

'둥1' 앞의 매김꼴과 '둥2' 앞의 매김꼴을 살펴보면, '둥1' 앞의 매김꼴에 대하여 둥2' 앞의 매김꼴로는 주로 '말다' 부정의 매김꼴이 놓인다. 일반적으로 '말다' 부정의 매김꼴은 도움움직씨로서 월에서 홀로 설 수 없고 앞에 으뜸움직씨에 의지하여야 하지만, 여기서는 '말다' 부정의 매김꼴만이 쓰이고 으뜸풀이씨가 놓이게 되면 오히려 부적격해져 특이한 경우에 해당한다.

(5) ㄱ. 철수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집을 나섰다.
ㄴ. *철수는 밥을 먹는 둥 **먹지 마는** 둥 하고 집을 나섰다.

이와 같이 으뜸움직씨를 앞세우지 않고 '말다'가 쓰였다는 것은, '말다'가 그 앞에 놓인 '-는/은/을 둥'에 의지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는/은/을 둥'은 '마는/만/말 둥'과 결합하여 익은말로 굳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짜임새에서 '-둥2' 앞에는 '말다' 부정은 쓰일 수 있지만 '아니하다' 부정은 쓰일 수 없다. '아니하다' 부정이 결합되면 (6)과 같이 부적격해지는 점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6) ㄱ. *철수는 밥을 먹는 둥 **않는** 둥 하고 집을 나섰다.
ㄴ. *철수는 밥을 먹는 둥 **먹지 않는** 둥 하고 집을 나섰다.

이와 같은 특성도 '-는/은/을 둥 마는/만/말 둥'이 익은말로 굳어졌음을 뒷받침해 주는 근거가 된다. 곧 '말다'는 시킴월이나 꾀임월의 부정인 경우에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둥2' 앞에는 '말다'가 쓰여야 하는 환경과 관련이 없는데도 '아니하다'가 쓰이지 않고 '말다'가 쓰였다는 점이다. '말다' 부정은 '둥1' 앞에는 놓일 수 없으며, 반드시 '둥2' 앞에 놓여야 하되, 으뜸움직씨는 놓일 수 없는 제약이 따른다.

'-둥2' 앞의 매김꼴로는 '말다' 부정 밖에도 (7)과 같이 '-둥1' 앞의 움직씨 매김꼴과 반의관계나 모순관계에 놓이는 움직씨 매김꼴도 놓이는 일이 있다. 그러나 그리 생산성이 크지 않아 그 용례가 많은 편은 아니며, 대립적 움직씨의 놓이는 자리도 대체로 고정적이어서 자리를 바꾸게 되면 부적격해지기도 한다.

(7) ㄱ. 부모 세대는 **죽을** 둥 **살** 둥 안간힘을 쓰며 살았다.
→*부모 세대는 **살** 둥 **죽을** 둥 안간힘을 쓰며 살았다.
ㄴ. 철수는 집에 **있는** 둥 **없는** 둥 지내고 있다.
→*철수는 집에 **없는** 둥 **있는** 둥 지내고 있다.

앞자리나 뒷자리 '-은/는/을 둥' 뒤에는 어떤 토씨도 결합될 수 없다. 매인이름씨 다음에는 토씨의 결합이 자유로운 것부터 제약이 따르는 것, 제약이 극히 심한 것들이 있지만, 매인이름씨인 '둥' 뒤에는 어떠한 토씨도 결합될 수 없는 제약이 따른다.[6] '-은/는/을 둥…-은/는/을 둥' 뒤에 통합되는 요소로는 마디나 이은말, '하다' 따위의 풀이말이 있다.

(8) ㄱ. 철수가 얼굴을 본 둥 만 둥 **그냥 지나간다**.
ㄴ. 철수가 이야기를 할 둥 말 둥 **망설인다**.
ㄷ. 어제는 비가 오는 둥 마는 둥 **했다**.

'-은/는/을 둥…-은/는/을 둥' 뒤에 마디나 이은말이 통합되면, 전체 월은 이은월의 짜임새에 해당된다. '-은/는/을 둥…-은/는/을 둥'까지가 앞마디를 이루고 뒷부분이 뒷마디를 이루며, 앞마디와 뒷마디는 임자말이 같아야 한다. (8)의 ㄱ과 ㄴ의

6) 학교 문법에서처럼 '이다'를 토씨로 보면, 예외적으로 '이다'만이 결합 가능하게 된다.

월 짜임새를 간단히 나타내면 (9)와 같다.

(9) ㄱ. [[철수가 얼굴을 본 둥 만 둥]앞마디 [(철수가) **그냥 지나간다**.]뒷마디]이은월
ㄴ. [[철수가 이야기를 할 둥 말 둥]앞마디 [(철수가) **망설인다**.]뒷마디]이은월

'-은/는/을 둥…-은/는/을 둥' 뒤에 '하다'가 통합되면, 전체 월은 안은월의 짜임새에 해당되며, '-은/는/을 둥…-은/는/을 둥' 부분은 안김마디를 이루고, '하다'는 안은월의 풀이말을 이루게 된다. 이 월에서 안은월의 임자말과 안김마디의 임자말은 같아야 한다.

(10) ㄱ. [(철수는) [철수는 숙제를 하는 둥 마는 둥]안김마디 **했다**.]안은월
ㄴ. [(비가) [어제는 비가 오는 둥 마는 둥]안김마디 **했다**.]안은월

'-은/는/을 둥…-은/는/을 둥' 뒤에는 잡음씨 '-이다'가 결합될 수 있다. 이 짜임새에서 '-은/는/을 둥…-은/는/을 둥' 부분은 '이다'와 결합되어 풀이말을 이루게 된다.

(11) ㄱ. 이번에 못 먹으면 앞으로는 [먹을 둥 말 둥]**이다**.
ㄴ. 조느라고 공부는 [하는 둥 마는 둥]**이다**.

'-은/는/을 둥…-은/는/을 둥'은 <'둥1' 앞에 놓인 내용과 '둥2' 앞에 놓인 내용을 하는 듯하기도 하고 하지 않는 듯하기도 함.>의 뜻을 나타내는 특성을 보인다.[7]

다음은 건너따옴꼴 '-는다는/느냐는/자는/으라는' 매김꼴이 놓이는 '둥'의 쓰임을 살피기로 한다. 이 짜임새는 단순히 '-은/는/을 둥…-은/는/을 둥' 앞에 각 의향법의 중화형태가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 그 까닭은 두 짜임새의 말본적 특성과 뜻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는다는/느냐는/자는/으라는 둥'은 반드시 되풀이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의적 되풀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되풀이되지 않고 한번만 쓰인 (12)도 적격한 월이 된다.

---

7) 허웅은 <이랬다 저랬다 갈피를 못 잡는 모양>의 뜻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허웅, 『20세기 우리말의 형태론』(샘문화사, 1995), 290쪽.

(12) ㄱ. 사람들은 철수가 너무 어리**다는 둥** 말이 많았다.
ㄴ. 철수는 왜 오래 기다려야 하**느냐는 둥** 불평을 하였다.
ㄷ. 철수는 이번에는 양식을 먹**자는 둥** 수선을 피웠다.
ㄹ. 철수는 이번만은 기대하**라는 둥** 허풍을 떨었다.

이 짜임새는 본디 '둥' 앞에 각 의향법 마침씨끝의 중화형태인 '-는다', '-느냐', '-자', '-으라'에 '-고 하는'의 결합형 '-는다고 하는', '-느냐고 하는', '-자고 하는', '-으라고 하는'이었던 것이 '-고 하'가 줄어들어 '-는다는', '-느냐는', '-자는', '-으라는'으로 된 것이다.[8] 이 가운데 어느 것이 '둥' 앞에 통합되느냐에 따라 쓰임에서 차이를 보인다.

'-는다는 둥'[9]은 수의적으로 되풀이되어 통사적 짜임새 '-는다는 둥…-는다는 둥'을 짜 이룬다. '-는다는 둥'은 한번만 되풀이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론적으로는 그 이상의 되풀이도 가능하다.[10] 앞자리와 뒷자리의 '-는다는 둥'인 경우에는 결합 가능한 풀이씨로 움직씨만이 아니라 그림씨 잡음씨도 가능하여, 앞에서 살핀 '-는/은/을 둥'에서와 차이를 보인다.

(13) ㄱ. 철수는 밥을 **먹**는다는 둥 죽을 **먹**는다는 둥 횡설수설하였다.
ㄴ. 철수는 방이 **좁**다는 둥 방값이 **비싸**다는 둥 불만이 많았다.
ㄷ. 철수가 학생**이**라는 둥 **아니**라는 둥 의견이 분분하다.

(13)에서와 같이 '-는다는 둥' 앞에 놓이는 풀이씨 종류에는 제약이 없을 뿐더러 '-는다는 둥1'과 '-는다는 둥2' 앞의 풀이씨 종류도 같아야 하는 제약은 없다. 일반적으로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14)와 같이 다르더라도 적격한 월이 된다. 곧 (14ㄱ)과 같이 앞에 움직씨가 놓이고 뒤에 그림씨가 놓이더라도 적격한 월이 되며, (14ㄴ)과 같이 앞에 그림씨가 놓이고 뒤에 잡음씨가 놓이더라도 적격한 월

8) 이 짜임새에서는 줄어든 꼴이 본디 꼴로 환원되더라도 쓰임과 뜻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
9) '-는다는 둥'은 그 앞에 놓이는 환경에 따라 변이형태 /-는다는 둥/, /-ㄴ다는 둥/, /-다는 둥/, /-라는 둥/으로 실현된다.
10) 한번 이상 되풀이되는 보기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철수는 방이 좁**다는 둥** 방값이 비싸**다는 둥** 방이 어둡**다는 둥**…불만이 많았다."

이 된다. 또한 (14ㄷ)과 같이 앞에 잡음씨가 놓이고 뒤에 그림씨가 놓이더라도 적격한 월이 된다.

(14) ㄱ. 철수는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둥 키가 **크**다는 둥 소문이 무성하다.
ㄴ. 철수는 키가 **크**다는 둥 우등생**이**라는 둥 소문이 무성하다.
ㄷ. 철수는 우등생**이**라는 둥 그림을 잘 **그린**다는 둥 소문이 무성하다.

이와 같이 '-는다는 둥1'과 '-는다는 둥2' 앞에 놓이는 풀이씨 간에는 제약을 주거나 받는 관계가 아니다. '-는다는 둥1'과 '-는다는 둥2' 앞 풀이씨가 부정의 관계에 놓이는 경우에는 '아니하다'와 '못하다' 부정은 가능하지만 '말다' 부정은 불가능한데, 그 까닭은 자명하다. 곧 '-는다는'에서의 '-는다'가 서술법 마침씨끝의 중화형태이기 때문에 서술법 월에서 '말다' 부정이 쓰이지 못하는 일반적 제약 때문이다. 한편 '-는다는 둥1' 앞이 부정이건 '-는다는 둥2' 앞이 부정이건 월의 적격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5) ㄱ. 철수는 옷을 산다는 둥 사지 **않는다는/못한다는** 둥 하다가 결국 못 샀다.
ㄴ. 철수는 옷을 사지 **않는다는/못한다는** 둥 산다는 둥 하다가 결국 못 샀다.

'-는다는 둥' 앞에 놓이는 풀이씨 뿌리는 때매김씨끝과의 결합에서 제약이 따르지 않는다. 또한 '-는다는 둥1' 앞의 때매김과 '-는다는 둥2' 앞의 때매김이 같아야 하는 제약이 없기 때문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16) ㄱ. 철수는 어제 학교에 **갔**다는 둥 내일은 학교에 안 가**겠**다는 둥 말이 많다.
ㄴ. 내년엔 일등을 하**겠**다는 둥 이번엔 시험이 어려**웠**다는 둥 말이 많다.
ㄷ. 이번엔 시험이 어렵**더**라는 둥 다음엔 시험을 잘 보**겠**다는 둥 말이 많다.

주체가 높임의 대상인 경우에 '-으시-'가 결합될 수 있으며, '-는다는 둥1'과 '-는다는 둥2'의 임자말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임자말 제약은 따르지 않는다. '-는다는 둥1'과 '-는다는 둥2' 뒤에는 토씨가 결합될 수 없으며, 마디나 이은말, 풀이말이 통합되어 이은월을 짜 이루며, '-는다는 둥…-는다는 둥' 부분이 앞

마디에 해당한다. ‘하다’가 통합되는 경우에는 안은월을 짜 이루며, ‘-는다는 둥…-는다는 둥’ 부분은 안김마디를 이루게 된다.

(17) ㄱ. [[저분은 한국 사람이라는 둥 일본 사랑이라는 둥]앞마디 [의견이 분분하다.]뒷마디]이은월
ㄴ. [(철수는) [철수는 아침에 밥을 먹는다는 둥 안 먹는다는 둥]안김마디 하였다.]안은월

‘-느냐는 둥’[11]도 수의적으로 되풀이되어 통사적 짜임새 ‘-느냐는 둥…-느냐는 둥’을 짜 이룬다. ‘-느냐는 둥’은 한번만 되풀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이상의 되풀이도 가능하다.

(18) ㄱ. 잠자리는 편했**느냐는 둥** 아침을 잘 먹었**느냐는 둥** 질문이 끊이지 않았다.
ㄴ. 누가 오**느냐는 둥** 왜 오**느냐는 둥** 어디에서 오**느냐는 둥**…말들이 많았다.

‘-느냐는 둥’의 쓰임은 ‘-는다는 둥’에서와 일치한다. 곧 결합 가능한 풀이씨 종류에 제약이 없으며, 앞이나 뒤의 풀이씨 종류가 같거나 다르거나 상관이 없다. 또한 때매김의 제약도 따르지 않으며, 앞이나 뒤의 때매김에도 제약이 없다. 앞과 뒤가 부정의 관계에 놓이는 경우 ‘아니하다’와 ‘못하다’ 부정이 가능하지만 ‘말다’ 부정은 불가능하며, 앞에 부정이 놓이거나 뒤에 부정이 놓이거나 월의 적격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느냐는 둥1’과 ‘-느냐는 둥2’의 임자말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느냐는 둥1’과 ‘-느냐는 둥2’ 뒤에는 토씨가 결합될 수 없으며, ‘-느냐는 둥2’ 뒤에는 마디나 이은말, 풀이말이 통합되어 이은월을 짜 이루며, ‘하다’가 통합되는 경우에는 안은월을 짜 이루게 된다.

‘-자는 둥’도 수의적으로 되풀이되어 통사적 짜임새 -자는 둥…-자는 둥’을 짜 이룬다. ‘-자는 둥’은 한번만 되풀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이상의 되풀이도 가능하다.

11) ‘-느냐는 둥’은 그 앞에 놓이는 환경에 따라 변이형태 /-느냐는 둥/, /-으냐는 둥/, /-냐는 둥/으로 실현된다.

(19) ㄱ. 돈을 벌**자는 둥** 여행을 다니**자는 둥** 끊이지 않고 제안하였다.
ㄴ. 돈을 벌**자는 둥** 여행을 다니**자는 둥** 친하게 지내**자는 둥**…끊임없이 제안하였다.

'-자는 둥'에서 '-자'는 꾀임법 마침씨끝 중화형태이기 때문에 '-자는 둥'의 쓰임은 꾀임법 월의 쓰임에서와 일치한다. 곧 앞과 뒤의 '-자는 둥'에 결합 가능한 풀이씨로는 움직씨에 국한되며, 어떤 때매김씨끝도 결합될 수 없다. 앞과 뒤가 부정의 관계에 놓이는 경우 '말다' 부정만 가능하며, 앞에 부정이 놓이거나 뒤에 부정이 놓이거나 상관은 없다.

'-자는 둥' 뒤에 결합되거나 통합되는 요소는 '-는다는 둥'이나 '-느냐는 둥'과 일치한다. 곧 '-자는 둥1'과 '-자는 둥2' 뒤에는 토씨가 결합될 수 없으며, '-자는 둥2' 뒤에는 마디나 이은말, 풀이말이 통합되어 이은월을 짜 이루며, '하다'가 통합되는 경우에는 안은월을 짜 이루게 된다.

'-으라는 둥'[12]도 수의적으로 되풀이되어 통사적 짜임새 -으라는 둥…-으라는 둥'을 짜 이룬다. '-으라는 둥'은 한번만 되풀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이상의 되풀이도 가능하다.

(20) ㄱ. 일찍 일어나**라는 둥** 세수하**라는 둥** 잔소리가 심하다.
ㄴ. 일찍 일어나**라는 둥** 세수하**라는 둥** 청소하**라는 둥**…잔소리가 심하다.

'-으라는 둥'에서 '-으라'는 시킴법 마침씨끝의 중화형태이기 때문에 '-으라는 둥'의 쓰임은 시킴월의 쓰임에서와 일치한다. 곧 앞과 뒤의 '-으라는 둥'에 결합 가능한 풀이씨로는 움직씨에 국한되며, 어떤 때매김씨끝도 결합될 수 없다. 앞과 뒤가 부정의 관계에 놓이는 경우 '말다' 부정만 가능하며, 앞에 부정이 놓이거나 뒤에 부정이 놓이거나 상관은 없다.

'-으라는 둥' 뒤에 결합되거나 통합되는 요소는 '-는다는 둥'이나 '-느냐는 둥', '-자는 둥'과 일치한다. 곧 '-으라는 둥1'과 '-으라는 둥2' 뒤에는 토씨가 결합될 수 없으며, '-으라는 둥2' 뒤에는 마디나 이은말, 풀이말이 통합되어 이은월을 짜

12) '-으라는 둥'은 그 앞에 놓이는 환경에 따라 변이형태 /-으라는 둥/, /-라는 둥/으로 실현된다.

이루며, ‘하다’가 통합되는 경우에는 안은월을 짜 이루게 된다.

‘-는다는/느냐는/자는/으라는 둥…-는다는/느냐는/자는/으라는 둥’은 <‘둥1’ 앞의 내용이랬다 ‘둥2’ 앞의 내용이랬다 하며 갈피를 못 잡고 말이 많은 모양으로>의 뜻을 나타낸다.

‘-는다는/느냐는/자는/으라는 둥’의 되풀이에서 반드시 동일한 꼴이 되풀이되어야 하는 제약은 없다. 이를테면, 위에서 살핀 ‘-는다는 둥…-는다는 둥’, ‘-느냐는 둥…-느냐는 둥’, ‘-자는 둥…-자는 둥’, ‘-으라는 둥…-으라는 둥’은 같은 꼴 되풀이법에 해당하지만, 이 밖에도 ‘-는다는 둥…-느냐는 둥’, ‘-는다는 둥…-자는 둥’, ‘-는다는 둥…-으라는 둥’, ‘-느냐는 둥…-는다는 둥’, ‘-느냐는 둥…-자는 둥’, ‘-느냐는 둥…-으라는 둥’, ‘-자는 둥…-는다는 둥’, ‘-자는 둥…-느냐는 둥’, ‘-자는 둥…-으라는 둥’, ‘-으라는 둥…-는다는 둥’, ‘-으라는 둥…-느냐는 둥’, ‘-으라는 둥…-자는 둥’의 비슷한 꼴 되풀이법도 가능하다.

2. 체…체[13]

매인이름씨 ‘체’는 월에서 수의적으로 되풀이되어 최소 말본형인 통사적 짜임새 ‘체…체’를 짜 이룬다. ‘체’는 반드시 되풀이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의적 되풀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되풀이되지 않고 ‘체’가 한번만 쓰인 (21)도 적격한 월이 된다.

(21) ㄱ. 철수는 나를 모르는 **체** 딴전을 피운다.
ㄴ. 너는 나에게 아는 **체**를 하지 마라.
ㄷ. 철수는 자기만 똑똑한 **체** 한다.[14]

(21)에서의 ‘체’는 움직씨, 그림씨, 잡음씨 뿌리를 가리지 않고 매김씨끝 ‘-은’, ‘-는’과의 결합형에 매이게 되며, <그럴 듯하게 꾸밈>의 뜻을 나타낸다. ‘체’가 되

13) ‘체…체’와 뜻과 쓰임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척…척’이 있다.

14) 학교문법이나 많은 논저에서 ‘체’ 뒤에 놓이는 ‘하다’를 결합시켜 매인풀이씨 ‘체하다’로 보기도 하지만, 이 글에서는 ‘체’를 매인이름씨, ‘하다’를 안은월의 풀이말 역할을 하는 풀이씨로 보아 통사적 짜임새로 본다.

풀이되어 '체…체'를 짜 이루게 되면, '체'와는 말본적 특성과 뜻에서 차이를 보이게 되기 때문에 최소의 말본형으로 설정된다. 이를테면, 되풀이되지 않은 '체' 앞에는 매김꼴인 '풀이씨(움직씨, 그림씨, 잡음씨) 뿌리 + -는/은'이 통합될 수도 있지만, '체…체'에서는 '체1' 앞에 '움직씨 뿌리+-은'만이 통합될 수 있다. 움직씨 중에 극히 일부만 '체1' 앞에 놓일 수 있으며, '체2' 앞에는 '말다'의 매김꼴 '만'으로 고정된다.

(22) ㄱ. 철수가 나를 **본** 체 **만** 체 떠나갔다.
*철수가 나를 보**는** 체 **마는** 체 떠나갔다.
ㄴ. 소리를 질러도 **들은** 체 **만** 체 한다.
*소리를 질러도 듣는 체 **마는** 체 한다.

(22)에서와 같이 '본 체 만 체', '들은 체 만 체'로 이은말을 짜 이루어 익은말화 하였다. '체…체' 뒤에는 '도', '를' 등 극히 일부의 토씨만이 결합될 수 있다.[15] '체1' 뒤에는 어떤 토씨도 결합될 수 없다.

(23) ㄱ. 철수는 나를 본체 만 체**도** 안 한다.
*철수는 나를 본체**도** 만 체**도** 안 한다.
ㄴ. 들은 체 만 체**를** 안 한다.
*들은 체를 만 체**를** 안 한다.

'체…체' 뒤에는 마디나 이은말이 통합되어 전체 월은 이은월을 짜 이루며, '체…체' 부분이 앞마디를 이루고 뒷부분은 뒷마디를 이룬다. '체…체' 뒤에는 '하다'가 통합되어 전체 월은 안은월을 짜 이루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하다'는 안은월의 풀이말을 이루게 되고 '체…체' 부분은 안김마디를 이루게 된다.

(24) ㄱ. [[그는 **본 체 만 체**]앞마디 [(그는) 누워만 있었다.]뒷마디]이은월
ㄴ. [철수는 [(철수는) 내 말을 **들은 체 만 체**]안김마디 하였다.]안은월

15) '체…체' 뒤에 '도'가 결합되는 경우, 그 다음에는 부정의 요소가 통합된다.

‘체…체’는 <‘체1’ 앞에 놓인 내용인 것처럼 하기도 하고, ‘체2’ 앞에 놓인 내용인 것처럼 하기도 함.>의 뜻을 나타내는 특성을 보인다.

3. 듯…듯

매인이름씨 ‘듯’[16]도 월에서 수의적으로 되풀이되어 통사적 짜임새 ‘듯…듯’을 짜 이룬다. ‘듯’은 반드시 되풀이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의적 되풀이에 해당하며, 되풀이되지 않고 ‘듯’이 한번만 쓰인 (25)도 적격한 월이 된다.

(25) ㄱ. 소나기가 오는 **듯**, 지붕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ㄴ. 귀가 떨어져나갈 **듯**, 겨울바람이 몹시 불었다.
ㄷ. 철수는 자기가 똑똑한 **듯** 우쭐대었다.

매인이름씨 ‘듯’은 움직씨, 그림씨, 잡음씨 뿌리를 가리지 않고 매김씨끝 ‘-은’, ‘-는’, ‘-을’과의 결합형에 매이게 되며, <앞에 놓인 내용과 비슷하게>의 뜻을 나타낸다. ‘듯’이 수의적으로 되풀이되어 ‘듯…듯’을 짜 이루게 되면, 한번만 쓰이는 ‘듯’과는 말본적 특성과 뜻에서 차이를 보이게 되기 때문에 최소의 말본형으로 설정된다. 한번만 쓰이는 ‘듯’ 앞에는 움직씨/그림씨/잡음씨 + -는/은/을’의 매김말이 놓일 수 있어, 풀이씨의 종류나 매김씨끝 종류에 제약이 따르지 않지만, ‘듯…듯’에서 ‘듯1’ 앞에는 매김꼴인 ‘움직씨 뿌리 + -는/은/을’은 통합될 수 있지만 그림씨와 잡음씨의 매김꼴은 통합될 수 없다. ‘듯2’ 앞에는 ‘말다’의 매김꼴인 ‘마는/만/말’이 통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17] ‘듯1’ 앞의 매김씨끝과 ‘듯2’ 앞의 매김씨끝은 때매김이 같아야 하는 제약이 따른다. 곧 ‘-는 듯 마는 듯, -은 듯 만 듯, -을 듯 말 듯’의 꼴로 이은말을 짜 이루어, 익은말화 하였다. ‘듯1’ 앞에 통합되는 움직씨 뿌리는 광범위하고, 이에 결합될 수 있는 매김씨끝에서도 제약이 없는 점에

16)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듯’을 ‘듯이’의 준말로 처리하였으나, 허웅은 ‘듯’을 “‘듯이’의 줄임인 듯. 그러나 ‘듯이’와 다른 점은 ‘듯’에는 ‘하다’가 붙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라 하였다. 허웅, 위의 책(1995), 286쪽.

17) ‘말다’ 이외에 앞 매김말이 ‘있는’인 경우에 다음 보기와 같이 ‘없는’이 놓일 수 있다. 허웅, 위의 책(1995), 287쪽. “철수는 요즘 **있는** 듯 **없는** 듯 지내고 있다.”

서 ‘체…체’와 차이를 보인다.

(26) ㄱ. 그는 신문을 보**는** 듯 마**는** 듯 뒤적거리고 있다.
ㄴ. 철수는 잠을 **잔** 듯 **만** 듯 정신이 하나도 없다.
ㄷ.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릴** 듯 **말** 듯 하였다.

‘듯…듯’에서 ‘듯’이 비록 매인이름씨로, 이름씨에 해당하지만 ‘듯1’ 뒤에는 어떤 토씨도 결합될 수 없으며, ‘듯2’에도 결합 가능한 토씨가 좀처럼 발견되지 않는다.[18] ‘듯…듯’ 뒤에는 마디나 이은말이 통합되어 전체 월은 이은월을 짜 이루며, ‘듯…듯’ 부분이 앞마디를 이루고 뒷부분은 뒷마디를 이룬다. ‘듯…듯’ 뒤에는 ‘하다’가 통합되어 전체 월은 안은월을 짜 이루게 된다.[19] 그렇게 되면 ‘하다’는 안은월의 풀이말을 이루게 되고 ‘듯…듯’ 부분은 안김마디를 이루게 된다. (26)의 월 짜임새를 간단히 나타내면 (27)과 같다.

(27) ㄱ. [[그는 신문을 보**는** 듯 마**는** 듯]앞마디 [(그는) 뒤적거리고 있다.]뒷마디]이은월
ㄴ. [[철수는 잠을 **잔** 듯 **만** 듯]앞마디 [정신이 하나도 없다.]뒷마디]이은월
ㄷ. [선생님의 목소리가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릴** 듯 **말** 듯]안김마디 하였다.]안은월

‘듯…듯’은 <‘듯1’ 앞에 놓인 내용일 것 같기도 하고, ‘듯2’ 앞에 놓인 내용일 것 같기도 함.>의 뜻을 나타내는 특성을 보인다. ‘움직씨 뿌리-을 듯’이 되풀이되되, 움직씨까지 그대로 되풀이되는 일이 있다. 이 경우에는 ‘듯…듯’의 되풀이에 해당하지 않고 ‘움직씨 뿌리-을 듯’의 되풀이로, 월조각 되풀이에 해당한다.[20] 뒤에는 일반적으로 ‘하다’가 통합된다.

---

18) 한번만 쓰인 ‘듯’ 뒤에는 아래 보기와 같이 ‘도’, ‘만’ 등 일부 도움토씨가 결합되기도 한다. “이 일에는 큰 흑막이 감추어져 있는 듯**도** 합니다,” “그의 가슴은 미어질 듯**만** 하였다.”

19) 학교문법이나 많은 논저에서 ‘듯’ 뒤에 놓이는 ‘하다’를 결합시켜 매인풀이씨 ‘듯하다’로 보기도 하지만, 이 글에서는 ‘듯’을 매인이름씨, ‘하다’를 안은월의 풀이말 역할을 하는 풀이씨로 보아 통사적 짜임새로 본다.

20) 월조각의 되풀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한길을 참조할 수 있다. 한길, 앞의 논문(1993), 158~185쪽.

(28) ㄱ. 비가 **올 듯 올 듯** 하면서 오지 않았다.
ㄴ. 비가 **올 듯** 하면서 오지 않았다.
ㄷ. 철수가 말을 **할 듯 할 듯** 하다가 그만 두었다.
ㄹ. 철수가 말을 **할 듯** 하다가 그만 두었다.

곧 (28)에서 ㄱ은 ㄴ의 '**올 듯**'이 되풀이된 월이고, ㄷ은 ㄹ의 '**할 듯**'이 되풀이되어 이루어진 월로, 단순히 '듯'만 되풀이된 것이 아니라 월조각이 되풀이된, 월조각 되풀이법에 해당한다.

4. 데…데

<'곳'이나 '장소'>의 뜻을 나타내는 매인이름씨 '데'는 움직씨, 그림씨, 잡음씨 뿌리를 가리지 않고 매김씨끝 '-은', '-는', '-을'과의 결합형에 매이게 되며, 뒤에 결합되는 토씨에도 제약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보편성 매인이름씨에 해당한다. '데'가 수의적으로 되풀이되어 최소 말본형인 통사적 짜임새 '데…데'를 짜 이루기도 한다.

(29) ㄱ. 갈 **데** 안/못 갈 **데**를 잘 가려라.
ㄴ. 끼일 **데** 안 끼일/못 **데**를 구분도 못 한다.
ㄷ. 내가 갈 **데** 못 갈 **데**가 어디 있어?

통사적 짜임새인 '데…데'에서 '데1'과 '데2' 앞에는 매김꼴인 '움직씨 뿌리+-을'이 결합될 수 있지만, '그림씨나 잡음씨 뿌리+-을'은 결합될 수 없다. 또한 매김씨끝으로 '-을'만 가능할 뿐이고 '-는'과 '-은'은 불가능하다. 주로 '데2' 앞에는 '데1' 앞에 놓인 움직씨의 부정이 오는데, '안'과 '못' 부정은 가능하지만 '말다' 부정은 불가능하다. '데2' 뒤에는 자리토씨와 일부 도움토씨가 결합될 수 있지만, '데1' 뒤에는 어떤 토씨도 결합될 수 없다.

통사적 짜임새였던 '데…데'가 형태적 짜임새의 일부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 형태적 짜임새로 바뀐 '데…데'는 쓰임에서 심한 제약을 보인다. 곧 '데' 앞에 놓일 수 있는 움직씨가 극히 한정되어 있어 익은말이 되었다가 형태적 짜임새로 결합되어 한 낱말로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 앞 움직씨 뿌리에는 주로 '오-(다)'로 고정되

고 뒤 움직씨 뿌리에는 주로 '가-(다)'로 고정되어 익은말이 되었다. '오다'와 '가다'는 매김꼴로 '온/올', '간/갈'만이 결합될 수 있다. '데1' 앞에는 '온/올'이 주로 놓이고, '데2' 앞에는 '간/갈'이 주로 놓일 수 있으며, 앞이 '온'이면 뒤가 '간'이어야 하고, 앞이 '올'이면 뒤가 '갈'이어야 한다. 아울러 '데…데' 뒤에 결합되는 요소는 '없다'로 고정되는 제약을 보인다.

(30) ㄱ. 그 많던 재산이 **온** 데 **간** 데 없다.
→그 많던 재산이 **온데간데없다**.
ㄴ. 저분은 **올** 데 **갈** 데 없는 사람이다.
→저분은 **올데갈데없는** 사람이다.

형태적 짜임새 '데…데'에서 '오(다)'와 '가(다)'의 순서가 바뀔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데1' 앞에 놓이는 매김말이 '간'일 때에 한정되며, '가는'과 '갈'일 때는 바뀌어 쓰일 수 없음을 (3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1) ㄱ. 그 많던 재산이 **간** 데 **온** 데 없다.
→그 많던 재산이 **간데온데없다**.
ㄴ. *저분은 갈 데 올 데 없는 사람이다.
→*저분은 **갈데올데없는** 사람이다.
ㄷ. *저분은 오**는** 데 가**는** 데 없는 사람이다.
→*저분은 오**는**데가**는**데없는 사람이다.

통사적 짜임새인 '오는 데 가는 데 없다'와 형태적 짜임새인 '오는데가는데없다'가 쓰일 수 없음은 (31) 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형태적 짜임새 '데…데'에 의해 생성된 낱말은 그림씨로, '온데간데없다', '올데갈데없다', '간데온데없다'이며, 이와 이론적으로는 같은 짜임새에 해당하는 '갈데올데없다'는 낱말로 생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이들 세 낱말에 대한 사전적 처리를 보면,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큰사전』은 셋 모두를 올림말로 싣고 있으며, 『연세한국어사전』은 '온데간데없다', '올데갈데없다' 둘을 올림말로 싣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 형태적 짜임새 '데…데'에서의 '데'는 그림씨인 '온데간데없다', '올데갈데없다', '간데온데없다'의

낱말 구성 요소 중 하나일 뿐 낱말로서의 자격을 가지지 못한다.

5. 겸…겸

매인이름씨 '겸'은 이름씨 사이에 쓰이거나, 움직씨 사이에 쓰이되, 앞자리 움직씨는 매김씨끝 '-을'로 꼴바꿈한 모습으로 쓰이며, <앞자리에 놓이는 것과 동시에 아울러>의 의미적 특성을 나타낸다.

(32) ㄱ. 오늘은 늦게 일어나 아침 **겸** 점심을 먹었다.
ㄴ. 백화점도 들를 **겸** 시내에 나갔다.

이름씨 사이에 쓰이는 '겸'은 앞 이름씨와 뒤 이름씨를 이어주는 구실을 한다. '겸' 뒤에는 어떤 토씨도 결합될 수 없고 이름씨가 통합되는 특성을 나타낸다. 이 '겸'은 수의적으로 되풀이되어 쓰일 수 있으며, 두 번 이상의 되풀이도 가능하다. 되풀이된다고 해서 한번만 쓰인 '겸'과 쓰임, 뜻에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두 번 이상 되풀이되더라도 마지막 '겸' 뒤에는 이름씨가 놓여야 한다. '겸'은 되풀이되는 '겸'과 긴밀한 짜임새를 이루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소 말본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33) ㄱ. 아버지는 사장 **겸** 부장 **겸** **사환**으로 일하신다.
ㄴ. 아버지는 사장 **겸** 부장 **겸** 사원 **겸** **사환**으로 일하신다.
ㄷ. 아버지는 사장 **겸** 부장 **겸** 사원 **겸**…**사환**으로 일하신다.

이와 같이 이름씨에 매여 있는 '겸'은 이름씨와 이름씨를 이어주기 때문에 기능에서만 보면, 이음토씨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름씨 사이의 '겸'은 매인이름씨에 해당하지만 월조각으로서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이름씨와 이름씨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이들 짜임새에 토씨나 잡음씨가 결합되어 비로소 월조각으로 쓰이게 된다. '겸'이 두 번 이상 되풀이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4) ㄱ. [[사장 **겸** 부장]이]임자말 저분이시다.

ㄴ. 아버지는 [[사장 겸 부장 겸 사환]으로]어찌말 일하신다.
ㄷ. 저분은 [[사장 겸 부장 겸 사환]이시다]풀이말.

매김말에 매여 있는 '겸'은 앞에 놓이는 매김말에 제약이 따른다. 매김말 중 움직씨의 매김꼴만이 통합될 수 있으며, 움직씨의 매김꼴 중에도 매김씨끝이 '-을'인 경우에 한하여 통합될 수 있다. 이 '겸'도 수의적으로 되풀이되어 쓰일 수 있으며, 두 번 이상의 되풀이도 가능하다. 되풀이된다고 해서 한번만 쓰인 '겸'과 쓰임, 뜻에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매김말에 매여 있는 '겸'도 되풀이되는 '겸'과 긴밀한 짜임새를 이루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소 말본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35) ㄱ. 뽕도 **딸 겸**, 임도 볼 **겸**, 뽕밭으로 향했다.
ㄴ. 뽕도 **딸 겸**, 임도 볼 **겸**, 바람도 쏘**일 겸**, 뽕밭으로 향했다.
ㄷ. 뽕도 **딸 겸**, 임도 볼 **겸**, 바람도 쏘**일 겸**,…뽕밭으로 향했다.

매김말에 매여 있는 '-을 겸'에도 토씨가 결합될 수 없으며, 뒤에는 마디, 이은말 따위가 통합된다. '-을 겸'은 앞부분에 놓이는 것과 뒷부분에 놓이는 것을 이어 주는 이음씨끝과 같은 구실을 한다.[21] 곧 '-을 겸' 앞에 놓이는 부분이 앞마디가 되고 뒤에 놓이는 부분이 뒷마디를 이루게 하여 이은월을 짜 이루게 하는 역할을 '-을 겸'이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겸'이 이름씨의 한 종류이지만 월조각으로 쓰이지 못하고 이음씨끝과 같은 구실을 한다.

(36) ㄱ. [[철수는 친구를 만**날 겸**]앞마디 [(철수는) 시내에 나갔다.]뒷마디]이은월
ㄴ. [[철수는 친구를 만**날 겸**]앞마디 [(철수는) 서점에 들**를 겸**]가운뎃마디 [(철수는) 시내에 나갔다.]뒷마디]이은월

'-을 겸'이 짜 이루는 이은월은 앞마디와 가운뎃마디, 뒷마디의 임자말이 같아야

21) 허웅은 '겸'을 사전에서 매인이름씨로 처리하고 있기에, 매인이름씨의 특별한 것으로 붙여둔다고 한 바와 같이, 매인이름씨로 확정짓기에는 다음과 같이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허웅, 위의 책(1995), 270쪽. "'겸'이란 말은, 위로는 매김말을 받을 수 있는 점은 이름씨와 같아 보이나, 그 뒤의 풀이말에 이끌리는 어떤 월성분으로서의 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말을 이어 주는 데 쓰이어서, 말본의 풀이를 어렵게 한다."

하며, 앞마디에만 임자말이 쓰이고 나머지 마디에는 임자말이 삭제되어야 한다. '-을 겸1'과 '-을 겸2'앞에 놓이는 마디는 임자말이 같고 풀이말의 풀이씨가 움직씨이어야 하는 제약이 따르지만, 짜임에서 대등관계를 이루어야 하는 제약은 없다. 곧 대등관계이거나 아니거나, 월 적격성에는 상관이 없다. (35ㄱ)에서는 '-을 겸1'과 '-을 겸2'앞이 '누가 무엇을 어찌한다.'로 대등관계에 해당하고, (36ㄴ)에서는 '-을 겸1' 앞은 '누가 무엇을 어찌한다.'이고 '-을 겸2' 앞은 '누가 어디에 어찌한다.'로, 대등관계가 아니지만 적격한 월이 되었다.

III. 마무리

매인이름씨 가운데 되풀이되어 되풀이 매인이름씨를 짜 이루는 것들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되풀이 매인이름씨는 월 안에서 반드시 되풀이되어야 하느냐, 되풀이될 수도 있고 되풀이되지 않을 수도 있느냐에 따라 필수적 되풀이 매인이름씨와 수의적 되풀이 매인이름씨로 갈랐다. 이 글에서는 이들 매인이름씨에 관하여 형태·통사적 특성을 밝히고 의미 기능도 기술하였다. 각각의 되풀이 매인이름씨는 뜻과 쓰임에서 공통된 점을 보이기도 하였지만,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되풀이 매인이름씨로는 '둥…둥', '듯…듯', '체…체', '데…데', '겸…겸'이 설정되었다. 이 가운데 '둥…둥'만이 분포상 제약이 심하지 않았으며, 그 밖에 것은 극심한 제약이 따라, 일부는 결합과정을 거쳐 낱말로 생성된 것들도 있었다. 설정된 되풀이 매인이름씨마다 형태·통사적 특성과 의미 기능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둥'은 되풀이되어 '둥…둥'의 꼴로 쓰이어 최소 말본형을 짜 이루었다. '둥' 앞에는 매김꼴인 '움직씨 뿌리 + -는/은/을'이 통합될 수도 있고, 건너따옴꼴 '-는다는/느냐는/자는/으라는'이 통합될 수 있는데, 매김꼴의 유형이 무엇이냐에 따라 쓰임과 뜻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각각 나누어 그 쓰임과 뜻을 살폈다. '-은/는/을 둥…-은/는/을 둥'은 <'둥1' 앞에 놓인 내용과 '둥2' 앞에 놓인 내용을 하는 듯하기도 하고 하지 않는 듯하기도 함.>의 뜻을 나타내었고, '-는다는/느냐는/자는/으라는 둥…-는다는/느냐는/자는/으라는 둥'은 <'둥1' 앞의 내용이랬다 '둥2' 앞의 내용이랬다 하며 갈피를 못 잡고 말이 많은 모양으로>의 뜻을 나타내었다.

‘체’는 월에서 수의적으로 되풀이되어 최소 말본형인 통사적 짜임새 ‘체…체’를 짜 이루었다. ‘체…체’에서는 ‘체1’ 앞에 ‘움직씨 뿌리+-은’만이 통합될 수 있고, 움직씨 중에 극히 일부만 ‘체1’ 앞에 놓일 수 있으며, ‘체2’ 앞에는 ‘말다’의 매김꼴 ‘만’으로 고정되었다. ‘체…체’ 뒤에는 마디나 이은말이 통합되어 전체 월은 이은월이나 안은월을 짜 이루었다. <‘체1’ 앞에 놓인 내용인 것처럼 하기도 하고, ‘체2’ 앞에 놓인 내용인 것처럼 하기도 함.>의 뜻을 나타내었다.

‘듯’도 월에서 수의적으로 되풀이되어 통사적 짜임새 ‘듯…듯’을 짜 이루었다. ‘듯…듯’은 ‘듯’과는 말본적 특성과 뜻에서 차이를 보이게 되기 때문에 최소의 말본형으로 설정되었다. ‘듯…듯’에서 ‘듯1’ 앞에는 매김꼴인 ‘움직씨 뿌리 + -는/은/을’이 통합될 수 있으며, ‘듯2’ 앞에는 일반적으로 ‘마는/만/말’이 통합되었다. ‘듯1’과 ‘듯2’ 앞의 매김씨끝은 때매김이 같아야 한다. <‘듯1’ 앞에 놓인 내용일 것 같기도 하고, ‘듯2’ 앞에 놓인 내용일 것 같기도 함.>의 뜻을 나타내었다.

보편성 매인이름씨 ‘데’가 수의적으로 되풀이되어 최소 말본형인 통사적 짜임새 ‘데…데’를 짜 이루었다. ‘데…데’에서 ‘데1’과 ‘데2’ 앞에는 매김꼴인 ‘움직씨 뿌리+-을’만이 결합될 수 있다. ‘데2’ 앞에는 주로 ‘데1’ 앞에 놓인 움직씨의 부정형이 오며, ‘데2’ 뒤에는 자리토씨와 도움토씨 일부가 결합될 수 있었다. 형태적 짜임새로 바뀐 ‘데…데’에서의 ‘데’는 그림씨인 ‘온데간데없다’, ‘올데갈데없다’, ‘간데온데없다’의 낱말 구성 요소 중 하나일 뿐 낱말로서의 자격을 가지지 못하였다.

‘겸’은 이름씨 사이에 놓여 이름씨를 이어 주기도 하고, 움직씨 사이에 쓰이되, 앞자리 움직씨는 매김씨끝 ‘-을’로 꼴바꿈한 모습으로 쓰여 앞마디와 뒷마디를 이어 주는 구실을 하였다. 되풀이되어 ‘겸…겸’, ‘-을 겸…-을 겸’을 짜 이루지만, 긴밀한 짜임새를 이루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소 말본형에 해당하지는 않았으며, <앞자리에 놓이는 것과 동시에 아울러>의 의미적 기능을 나타내었다.

참고문헌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두산동아, 1999.

금성판, 『국어대사전』. 서울: 금성출판사, 1992.

김석득,『우리말형태론』. 서울: 탑출판사, 1992.
서정수,『국어문법』. 서울: 뿌리깊은나무, 1994.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연세한국어사전』. 서울: 두산동아, 2001.
장석진,『화용론 연구』. 서울: 탑출판사, 1985.
최현배,『우리말본』. 서울: 정음사, 1971.
한글학회,『우리말큰사전』. 서울: 어문각, 1992.
한 길,「월조각의 되풀이법 연구」.『한글』221, 한글학회, 1993, 157~185쪽.
한 길,『현대 우리말의 형태론』. 서울: 역락, 2006.
한 길,「물음법 되풀이 마침씨끝 월의 특성」.『강원인문논총』제18집,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7, 2~28쪽.
한 길,「서술법 되풀이 마침씨끝 월의 특성」.『한글』279, 한글학회, 2008, 90~115쪽.
한 길,『우리말의 낱말생성 되풀이법 연구』. 춘천: 강원대학교출판부, 2009.
허 웅,『20세기 우리말의 형태론』. 서울: 샘문화사, 1995.
허 웅,『20세기 우리말의 통사론』. 서울: 샘문화사, 1999.

국 문 요 약

매인이름씨 가운데 ‘둥, 체, 듯, 데, 겸’은 수의적 혹은 필수적으로 되풀이되어 최소 말본형인 되풀이 매인이름씨 ‘둥…둥’, ‘듯…듯’, ‘체…체’, ‘데…데’, ‘겸…겸’을 짜 이룬다. 이 글에서는 이들 되풀이 매인이름씨를 최소 말본형으로 설정하고, 그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둥…둥’에서, ‘둥’ 앞에는 매김꼴인 ‘움직씨 뿌리 + -는/은/을’이 통합되고, 건너따옴꼴 ‘-는다는/냐는/자는/으라는’이 통합된다. ‘체…체’에서는 ‘체1’ 앞에 ‘움직씨 뿌리+-은’만이 통합될 수 있고, ‘체2’ 앞에는 ‘말다’의 매김꼴 ‘만’으로 고정된다. ‘체…체’ 뒤에는 마디나 이은말이 통합되어 전체 월은 이은월이나 안은월을 짜 이룬다.

‘듯…듯’에서, ‘듯1’ 앞에는 매김꼴인 ‘움직씨 뿌리 + -는/은/을’이 통합되며, ‘듯2’ 앞에는 일반적으로 ‘마는/만/말’이 통합된다. ‘듯…듯’ 뒤에는 마디나 이은말이 통합되어 전체 월은 이은월이나 안은월을 짜 이룬다. ‘데…데’에서, ‘데’ 앞에는 매김꼴인 ‘움직씨 뿌리+-을’만이 결합되고, 주로 ‘데2’ 앞에

는 '데1' 앞에 놓인 움직씨의 부정형이 놓인다. 형태적 짜임새로 바뀐 '데… 데'는 낱말로서의 자격을 가지지 못한다. '겸…(겸)'은 이름씨를 이어 주기도 하고, 움직씨 사이에 놓여, 앞마디와 뒷마디를 이어 주는 구실을 한다.

◉ 투고일 : 2009. 4. 8. ◉ 게재확정일 : 2009. 6. 1.
◉ 주제어(keyword) : 매인이름씨(bound noun), 최소 말본형(minimal grammatical form), 되풀이법(the method of repetition), 되풀이 매인이름씨(repetitional bound noun).